



세계 1위 잡고도 1점차로 메달을 놓친 전남도청 소속 '검객' 최세빈. /연합뉴스

강영미·최세빈·김민섭 '아쉬운 눈물' 전웅태·서창완·신은철 '희망의 출전'



파리올림픽 출전 광주·전남 선수들 희비 교차

유도 이해경·펜싱 김재원 노메달로 '고배' 복싱 임애지·육상 김장우 메달 딸까 '주목'

계막 5일째를 맞고 있는 파리 올림픽에서 광주·전남 선수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4년 간 구슬땀을 흘리며 올림픽을 준비했던 지역 선수 중 일부는 기대했던 성적에 미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삼켰지만, 지역민들은 이들의 노고에 많은 격려를 보내고 있다.

반면, 양궁과 복싱, 육상, 클라이밍, 근대 5종 경기는 지역 출신 선수들이 여전히 금메달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여자 에페 단체전 메달 사냥에 나선 강영미(광주서구청)가 다시 한번 아쉬움을 삼켰다. 2020 도쿄 올림픽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는 송세라(부산시청)·이혜인(강원도청)·최인정(계룡시청)과 금메달에 도전했지만 프랑스와의 8강전에서 31-37로 패했다.

광주 서구청 펜싱팀 합숙소에 '응원전'도 마련됐지만 강영미는 지난 27일 개인전 32강 탈락에 이어 단체전 금메달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을 마감하게 됐다.

여수 출신의 수영 김민섭(독도스포츠단)의 도전은 준결승에서 마무리됐다. 김민섭은 지난 31일 치러진 남자 접영 200m 준결승에서 1분55초22에 터치패드를 찍으면서 16명 중 13위를 기록했다.

김민섭은 앞서 치러진 예선에서 15위에 오르면서 한국 수영 남자 접영 최초로 올림픽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결승 무대는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27일 이번 올림픽 한국 유도 첫 주자로 나선 이해경(광주교통공사)이 여자 48kg급 32강전에서 타라 바볼파트(스웨덴)에 누르기 한판패를 당하면서 아쉬움을 뒤로 하고 파리 올림픽을 접었다.

'한국 유일 남자 에페' 펜싱 김재원(광주 서구청)은 지난 28일 남자 에페 개인전 32강에서 일본의 가노 고기에게 12-14로 패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펜싱 최세빈(전남도청)은 지난 30일 여자 사브르 개인전 16강전에서 세계랭킹 1위이자 2022·2023년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자인 에우라 미사키(일본)를 15-7로 꺾는 이변을 일으켰지만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율하 하를란(우크라이나)에게 14-15패를 기록하며 아쉬운 4위를 기록했다.

일부 선수들의 아쉬움은 남았지만, 순천시청의 남수현이 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10연패의 주역이 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남수현은 지난 29일 열린 양궁 여자 단체 결승전에서 임시현(한국체대), 전훈영(인천시청)과 함께 세트스코어 5-4로 중국을 물리치고 1988 서울 대회 이후 이 종목 10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남수현에 이어 복싱과 육상, 클라이밍, 근대5종 경기에서 지역 선수들의 메달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 여자 복싱 최초 세계 대회 금메달리스트' 화순군청 임애지는 이번 올림픽 여자 54kg급 8강 진출에 성공하면서 한국 여자 복싱 첫 메달에 도전한다.

타티아나 레지나 지 헤수스 사가스(브라질)를 상대로 4-1판정승을 거둔 임애지는 8월 2일 폴로니아의 예니 마르셀라 아리아스 카스타네다를 상대한다. 복싱은 준결승에만 진출해도 동메달을 확보하기 때문에 임애지가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한국 여자 복싱 첫 메달리스트가 된다.

광주 출신의 스포츠클라이밍 신은철(더셀)은 높이 15m의 인공 암벽을 최대한 빠르게 등반하는 '스피드' 종목에 출전한다. 오는 6일 오후 8시 첫 국제 대회 메달을 노리는 신은철의 남자 스피드 예선이 시작된다.

8월 8일 오전 2시 30분에는 육상 김장우(국군체육부대)가 남자 세단뛰기 예선에 나선다.

곡성 육과면이 고향인 김장우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의 김덕현 이후 한국에서 8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김장우는 지난해 7월 2023 아시아육상선수권 남자 세단뛰기 결선에서 16m59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따내는 등 김덕현에 이어 한국 세단뛰기 새 얼굴로 주목 받고 있다.

또 이날 오후 6시 근대 5종 남자 개인 펜싱 랭킹 라운드 경기도 이어진다.

이번 경기에는 지난 2023년까지 전남도청 소속으로 활약한 서창완(국군체육부대)과 2020 도쿄 대회에서 한국 최초로 이 종목 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근대5종 간판'으로 등극한 전웅태(광주시청)가 출전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파리올림픽 근대5종 금메달에 도전하는 광주시청 소속 전웅태. /연합뉴스

윤 "폭넓게 포용하라"... 한 "대통령 걱정없게"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 한 대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가 알아서 잘 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친윤 직계'로 분류되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유임 여부에 당내 관심이 쏠린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유임 또는 교체 여부에 따라 지난 23일 전당대회 이후 최고위가 친한계 위주로 재편되는나가 달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계파와 관계 없이 최고위 구성을 일임해 당의 운영

을 맡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폭넓게 듣고 포용하라'는 메시지가 오히려 한 대표와 대적점에 섰던 친윤계와 결합을 주문한 것이라는 정반대의 해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조직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강화해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걱정없이 잘 해내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면담은 국무회의 종료 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각각 오찬 약속이 있었지만, 약속을 다소 미루면서 면담을 이어갔다는 후문이다.

지난 24일 한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한 지 6

일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분은 과거 범조 생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 면담을 진행했다"며 "윤 대통령께서 한 대표에게 애정 어린 조언을 많이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 인선이 마무리돼 당 지도부가 정리되면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 하자"며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전날 만남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에 제안했으며, 애초 1시간 정도 면담이 예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없었으며, 정진석 비서실장이 면담 중 계속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상병특검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뤄짐에 따라 회동이 예정보다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우생순' 여자 핸드볼 강호 스웨덴 상대 2승 도전



오늘의 파리 올림픽

2024 파리 올림픽 개막 7일째인 1일(이하 한국시간)에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북유럽의 강호 스웨덴을 상대로 2승째에 도전한다.

스웨덴 출신 헨리크 시그널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이날 오후 6시 프랑스의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스웨덴을 상대로 대회 여자 핸드볼 조별리그 A조 4차전을 치른다.

우리나라 단체 경기 종목 중 유일하게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은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지난 25일 열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독일을 물리치는 파란을 일으켰다.

한국은 이어진 슬로베니아와 2차전, 노르웨이와 3차전에서는 아쉽게도 거꾸 졌다. 이제 차례로 스웨덴, 덴마크와 경기를 남겨졌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지난해 1월 세계선수권에서 각각 3, 4위

에 오른 강팀들이다. 쉽지 않겠지만, 8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덴마크와 스웨덴을 상대로 반드시 승점을 쌓아야 한다. 오후 7시에는 유도 여자 대표팀의 주장 윤현지(안산시청)가 '라스트 댄스'를 시작한다.

여자 78kg급의 윤현지는 이번 대회를 국가대표 은퇴 무대로 규정했다. 마지막인 만큼 모든 걸 쏟아내 금메달을 수확하겠다는 각오다.

윤현지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 오른팔 탈구로 수술대에 올라 올림픽 출전 티켓을 놓치는 등 큰 대회에서 잦은 불운에 시달렸던 선수다.

여자 양궁 임시현(한국체대)과 전훈영(인천시청)은 개인전 32강전과 16강전을 차례로 치른다.

이미 금메달 2개를 수확해 역대 최고 성적이 기대되는 사격에선 여자 50m 소총 3자세의 이은서(서산시청)가 이날 오후 7시 예선을 소화한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주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

체코 신규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국수력원자력은 최종 계약 체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1000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해역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출 사업확대